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품평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생활필수품들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수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수지 및 금속제품들, 가정용 전기제품들, 완구, 경질유리그릇, 가구 등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많이 출품시켰다고 하시면서 품평회장에 전시된 제품들마다에는 인민생활향상에 보탬을 주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군수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1954년 8월 군수공업부문에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도록 직접 발기하신 때로부터 지난 60여년간 이 사업은 당과 국가를 위한 우리 군수로동계급의 애국운동으로 발전되어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고와 심혈을 언제나 잊지 말고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을 대를 이어 전해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수공업부문에서 질 좋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 문제, 우리의것을 지키



는 문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 일군들이 이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문제라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을 자신들도 책임지고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생활필수품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생활필수품의 가지수와 량을 결정적으

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모든 생산기지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맵시있고 질 좋은 생활필수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생활필수품생산기지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손이 가지 않는 제품은 백만개, 천만개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생활필수품생산에서 중요한것은

인민들이 어떤 제품들을 좋아하는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는 제품생산에 힘을 넣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생활필수품생산기지들이 그 끈히 마련되어있고 우리 군수로동계급에게 여러가지 필수품들을 만들어본 경험도 있는 조건에서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보기도 좋고 쓸모가 있는 높은 수준의 제품들을 생산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가 생산한 질 좋은 생활필수품들이 상점들마다에 딱 차넘치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생활필수품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자신께서 직접 풀어주고 적극 도와주겠으니 해당 부문에서는 이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밀고나가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수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 로동계급들이 질 좋은 생활필수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투쟁이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는 자각을 안고 생활필수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한 창광상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래과학자거리에 새로 일떠선 창광상점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일떠서는 미래과학자거리에 몸소 창광상점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으며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83년 11월에 창립된 창광상점은 지난 수십년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상점이 미래과학자거리와 함께 새롭게 건설됨으로써 우리의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이 생산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상업봉사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창광상점이 본래보다 2배나 더 크면서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로 꾸러짐으로써 상점에 어려웠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더 잘 받아들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창광상점의 여러층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인건설자들이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으면서도 상업봉사기지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창광상점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창광상점의 매장들마다에 우리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이 만든 가지수가 다

양하고 질 좋은 상품들이 딱 차있다고, 상품진렬도 잘했다고 하시면서 상점이 환하다고,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상점에 현대적인 수직승강기와 계단승강기를 설치해놓았으며 아동놀이터, 청량음료점 등도 손색없이 꾸러놓았다고, 실내온도보장을 위해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도 잘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창광상점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래과학자거리 한복판에 인민들을 위한 상업봉사기지를 일떠세워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질 좋은 갖가지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고 인민들이 즐겨 찾아와 마음껏 상품들을 사가게 함으로써 흥하는 상점, 사회주의상점으로 되게 하자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인민들이 새로 일떠선 창광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면서 언제면 문을 여는가고 궁금해한다는데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게 운영준비를 더 잘하여 10월 10일을 계기로 개점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창광상점이 개점을 하게 되면 많은 인민들이 찾아올것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자주 내려와 당의 인민적시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상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창광상점의 봉사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라선땅에 수놓아지는 사랑의 전설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밖의 자연재해로 혹심한 피해를 입은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었다.

큰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직접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을 신문과 TV로 접하며 온 나라 인민들이 뜨거운 걱정을 삼키었다.

수해지역인민들때문에 얼마나 마을을 쓰시였으면 크고작은 국사들이 많이 제기되는 바쁘신 속에서도 머나먼 하늘길, 배길을 달려 나라의 최북단에 까지 찾아가신것이라.

아직 세멘트가루와 흙먼지가 날리는 피해복구전투장을 돌아보시면서 인민군대가 전화위부의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라선시 선봉지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완전히 전변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예로부터 불난 곳에는 남는 것이 있어도 큰물뒤에는 건질 것이 없다고 했다.

지난 8월말 며칠간 계속 내린 폭우로 일어난 라선시의 큰물피해는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공장, 기업소, 농경지가 파괴된것은 말할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됨으로써 생활상 고통과 어려움은 헤아릴수 없이 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선시가 입은 큰물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하루빨리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시기 위해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큰물피해복구대책문제를 중요의제로 제일먼저 토의하도록 하시고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그리고 즉석에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조직해주시었다.

온 나라가 뜻깊은 청년절을 앞두고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준비하고있던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라

선시가 혹심한 큰물피해를 입었는데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큰물피해로 집과 집세간을 잃은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된것은 물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한지에서 맞게 된다고, 오래지 않아 추위가 닥쳐오겠는데 라선시피해복구를 전당, 전국, 전군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신데 이어 한지에서 고생할 인민들의 정상을 넘려하시어 많은 량의 물고기와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들도 거듭 보내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거듭 부어주시는것이 아닌가.

그이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에 가슴을 적시며 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인민군인들은 불과 10일동안에만도 1300여세대의 살림집블록벽체쌓기를 완전히 끝내고 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작업을 진행하며 건설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라선시안의 인민들도 피해복구전투에 총동원되어 8월 31일까지 1000여세대의 살림집과 80여동의 공공건물들에 대한 부분보수를 끝낸데 이어 도로에 깔린 감탕치기작업, 침수된 수백정보의 농경지들에서 물빼기를 진행하고있으며 선봉지구의 전력, 통신망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전국각지의 인민들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식량과 각종 생활필수품 등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면서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그들의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투쟁을 고무해주고있다.

온 나라를 라선시피해복구사업으로 불러일으켜주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피해복구현지에까지 나가시어 복구정형을 료해하시며 10월 10일전으로 끝내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해주시었으니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

이날 그이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이미 살던 집보다 더 멋있고 현대적이며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자고 뜨

겁게 말씀하시었다.

피해를 입은 라선시를 단순히 원상복구할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화위부의 기적을 창조하여 선봉지구를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변시키시려는 그의 웅심깊은 뜻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결단이고 중대조치이다.

지구가 생겨 수억만년, 인류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는 오늘 피해를 입은 리재민들의 생활을 넘려하여 이토록 짧은 기간에 복구를 끝내도록 온 나라를 불러일으킨 레가 언제 어디에 있었던가.

공화국의 인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나라가 해방되어 첫 대자연개조사업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진행하여 어제날의 눈물의 강, 《토성량》을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켜주신 이야기며 지난 세기 60년대 중반기 뜻하

지 않은 큰물로 평양시가 수해를 입었을 때에는 다시는 그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동강의 곳곳에 미림갑문, 봉화갑문, 순천갑문을 비롯한 많은 갑문들을 일떠세워주시고 날바다를 가로막아 서해갑문까지 세워주시어 수도시민들이 물관리라는 말을 영영 모르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일.

어느해인가 무더기비로 광란하는 물살에 신의주지구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인민군부대와 직송기, 폐속정을 비롯한 모든 역량과 기체들을 총동원하여 한명의 사망자도 내지 말고 구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주체99(2010)년 큰물피해때에도 온갖 구조대책을 취해주시어 사랑의 직송기에서 새 생명이 첫 고고성을 올리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생겨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들 그 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인민이 자리잡고있으며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려는 불타는 념원이 높혀고있다. 그의 이런 숭고한 인민관이 그대로 인민군대의 정신력의 원천이 되고 기적과 혁신의 자양분이 되어 얼마후 조선로동당창건 70돐전으로 라선시피해복구는 성과적으로 끝나고 10월의 하늘가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있을세라 ||

앞당겨진 착공날자와 늦추어진 착공날자

주체47(1958)년 3월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갓 풀리기 시작한 얼음때문에 대동강의 나무배가 움직이지 못하는것을 보시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평양 시내 중심부와 동평양지구를 잇는 다리는 대동교뿐이어서 배길이 막히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로 에돌아다니곤 하였다.

시민들의 교통상불편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리건설을 힘쓰고 미룰수 없다고 하시면서 호소 배를 라시고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며 다리위치를 정해주시었다. 그리하여 새 다리인 육류교건설은 원래 계획된 착공날자보다 3년이나 앞당겨 시작되게 되었다.

늘어난 관성렬차선로길이

한장 또 한장... 유희기구사진들을 하나하나

평양의 천리마거리건설이 예정보다 석달이나 늦게 시작되는데도 사연이 있다.

주체59(1970)년 1월 중순 어느날 전화로 평양시의 한 일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철거되는 세대들이 겨울에 이사를 하게 되면 곤란한 점이 많을것이다, 지난해에 시작된 살림집건설에 힘을 넣어 빨리 완공한 다음 거기에 철거지대 사람들을 옮기고 건설에 착수하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었다.

앞당겨진 착공날자와 늦추어진 착공날자를 통해 언제나 국사의 첫자리에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먼저 놓으시고 돌보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에 대해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보고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시금

그 사진들을 반복하여 보시었다.

첫사진에는 관성렬차가 찍혀있었다. 관성렬차선로의 길이가 얼마인가고 하시는 그의 물으심에 한 일군은 1350m라고 대답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계에서 제일 긴것은 얼마인가고 다시 물으시었다.

1350m라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 수자를 몇번이나 입속으로 외우시고나서

집주인의 심정으로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창천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동문동에 건설된 초고층아파트의 맨웃층인 45층에 오르시어 살림집들을 돌아보실 때였다.

살림방의 방바닥도 일일이 짚어보시고 부엌의 갖춤새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그이께서는 이어 베란다에 나서시었다. 대동강을 따라 한쪽의 그림

세계적으로 제일 긴것이 1350m라고 해서 그이상 더 크게 해서 안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은가, 이왕이면 관성렬차의 선로를 좀더 길게 하여 1500m로 하자고 하시었다. 1350m와 1500m!

이 대비적인 수자속에는 인민들에게 제일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비껴있었다. 때는 주체65(1976)년 11월 하순이었다.

심정으로

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시너를 부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득 바람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며 창가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바람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람한점 스며들지 않게 창문틀에 바람막이를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로씨야신문 글 게재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알아온 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이 글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신문 《세르브이 몰로프》 9월호는 우리나라 국장사진과 함께 편집한 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 인민이 40여년간에 걸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조선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쳤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1945년에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 조국을 철벽으로 지키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에서도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이 실시되고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김일성동지, 그분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이 모든 성과를 안아왔다.

본사기자

위인의 손길 어린 대규모 만화영화창작기지

얼마전 우리는 풍치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자리 잡고있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를 찾았다.

사람들속에서 인기있는 만화영화를 만드는 조선 4.26만화영화촬영소는 근 60년의 력사와 더불어 관록있는 만화영화창작기지로 발달하였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이곳 촬영소의 김효준 예술부총장은 사색을 더듬어가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전후인 1957년 9월의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만화영화를 많이 만들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였다. 당시 형편으로서는 제작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누구도 신통한 방법을 못내고있을 때였다.

하지만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돈에 대한 타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고 의도였다.

그이의 깊은 관심속에 만화영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고 그에 따라 창작 집단이 무어지고 아동영화제작에 필요한 설비들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조선만화영화는 《금도끼와 쇠도끼》, 인형영화 《신기한 복숭아》의 재미있는 화면으로 자기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고 이후 영화의 주제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하고 제작편수와 권수도 늘이면서 만화영화발전의 넓은 길로 출발해왔다.

김효준 예술부총장은 《전후 령에서 시작한 우리의 만화영화는 그동안 말그대로 세기적인 변혁을 일으켰다.》고 말하였다.

오늘 조선만화영화의 장면장면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풍부한 예술적형상과 독특한 민족적색채, 등장인물들의 현란한 움직임, 기지있는 대사처리 등으로 기쁨있게 창작되고 발전하게 된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의 손길도 어리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세기 70년대 영화혁명명을 이끄시는 나날에 아동영화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동영화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만화, 인형, 지형영화들을 어린이들의 정서와 심리특성에 맞게 잘 만들도록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이며 세심한 지도속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나비와 수탉》, 《두장군이야기》,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등 세대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영화들이 창작되게 되었다. 만화영화 《소년장수》가 나왔을 때에는 연속편들을 일일이 보시고 어린이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잘 만들도록 그 부와 주제, 내용과 구성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가르치심을 주신 장군님이다.

그 나날 만화영화 《날

개달린 룡마》, 《참외를 굴린 개미》는 1985년 벨라리아 와르나세계영화축전에서 상장을, 만화영화 《도적을 쳐부신 소년》은 제1차 뽀러볼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의 국제영화축전에서 해불금상을 수여받은것을 비롯하여 만화, 인형, 지형영화들이 국제아동영화계의 높은 평가속에 광범히 보급상영되게 되었다. 미국의 뉴욕에서 1990년에 진행된 아시아국제영화축전에서는 만화영화 《물오리심판원》이 워싱턴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순회상영되며 인기를 끌었으며 연속편만화영화 《령리한 너구리》를 비롯한 수많은 만화영화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상영, 방영되었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만화영화는 독창성과 매력, 높은 형상수준과 빠른 창작속도로 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촬영소에서는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과 우리인민의 미감에 맞는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 조선의 만화영화를 세계의 앞선 수준에 올려세우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면서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지금 이곳 촬영소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더많은 훌륭한 만화영화를 창작하여 인민들을 기쁘게 해줄 일념으로 작품창작에 열정을 쏟아부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세계에서 손꼽히는 만화영화대국 이념

만화영화는 그림을 형상수단으로 하여 인물이나 사물현상을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만드는 영화예술의 한 형식이다. 일명 아동영화로도 통하는 만화영화의 력사는 100여년을 헤아리고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지적능력을 높여주고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형성에 도움이 되게 만화영화를 창작하고있다.

《령리한 너구리》, 《다람이와 고슴도치》, 《소년장수》를 비롯해서 우리 만화영화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속에서도 인기가 높다.

지난해 11월 우리 촬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4.26만화영화 촬영소는 력사가 있는 촬영소라고, 창립된 때

로부터 오늘까지 수백편의 만화영화를 제작한데 대해서와 여러 나라들과의 합작만화영화들도 만드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날 만화영화창작에서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과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주제와 형식의 재미있는 만화영화들, 특히 력

사물주제와 과학상식주제의 만화영화를 만드는데 힘을 넣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화영화 《소년장수》에서 나오는 인물모델그림을 보시면서 만화영화 《소년장수》 인기가 대단했다고, 지금은 50부에서 끝났는데 앞으로 100부까지 더 만들어 내놓으면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련속편으로 만드는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의 높은 애국심과 상무기풍, 미풍량속, 슬기롭고 용감한 투쟁이야기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반복과 도식에서 벗어나 종자선택과 주제설정을 바로하여 줄거리를 재미나게 엮어나가는 문제, 만화영화제작에서 흥미본위주의, 자연주의를 극복하는 문제 등 창작방향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화술배우들의 대사록음형상과 정도 지켜보시고 화술형상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문제도 가르쳐주셨으며 합성룩음에서 미디움악을 만들어 리용하도록 할데 대해서도 명철하게 밝혀 주셨다.

《꿀벌형제의 날개 옷》, 《새로 사건 동계》(1, 2부), 《쫓치형제들》을 비롯한 조선만화영화들과 100여편의 외국만화영화들을 3D제작술로 손색없이 창작한 우리의 창작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원수님께서는 오늘 세계적추세로 되고 있는 3차원만화영화를 만드는것을 장려하도록 할

데 대해 이르시였다. 영화제작과 창작활동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생활조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창작가들의 평균나이와 실력, 후비육성문제에 대해서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아동영화창작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에서 우리 창작가들은 그이의 비상한 예술적조예와 식견, 비범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망에 감복을 금치 못



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우리가 만화영화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우리 만화영화를 세계의 앞선 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울것을 기대하시며 작품창작에 필요한 설비들을 촬영소에 보내주시였다.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제작국으로 되게 하시려는 작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작품창조 과정을 보다 현대화, 과학화하며 창작가들의 지혜와 힘을 합쳐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우수한 아동영화를 더 많이 내놓도록 하겠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예술부총장 김효준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

룡악산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

기묘한 바위봉우리가 하늘을 찌르며 솟아있고 여름이면 녹음질은 숲속에서 온갖 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단풍에 물드는 우아한 풍치로 예로부터 《평양의 금강산》이라 불리워온 룡악산. 이 산은 1억 수천만년전 중생대시기에 형성된 산으로서 산봉우리가 마치 룡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 같이 생겼다고 하여 룡악산이라 불리우고있다. 경치가 하도 아름다와 옛 시인들이 《세상에 이름 높은 화가를 만나면 이산 그림 그려 병풍에다 옮겼으면》 하고 경탄을 금치 못한 명산은 대봉, 숭봉을 비롯한 20여개의 절묘한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평양의 아름다운 도시풍경과 향토질은 농

촌의 풍경을 한눈에 다 볼수 있는 그곳은 누구나 즐겨 찾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서 즐거운 등산의 기쁨이 봉이마다 골마다 차 넘친다.

룡악산이 인민들의 발걸음 그칠새 없고 학생소년들의 랑랑한 야영나팔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전변되게 된데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인 주제35(1946)년 5월 룡악산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나 어린 창덕학교시절 동무들과 함께 자주 올라 몸과 마음을 단련하군 하시였던 문바위며 샘터, 랑천터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력

사문화유적들을 감회깊이 돌아보시면서 이곳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릴 구상을 하시였다.

그후 여러차례 룡악산을 찾으시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주제63(1974)년 4월에는 아름다운 산기슭에 어린이들을 위한 야영소를 현대적으로 잘 지어주어야 한다고, 룡악산에 유명한 소년단야영소가 있다는것을 아이들이 기억할수 있도록 잘 지어주자고 그 터를 잡아주시고 형성안도 지도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악산지구를 유원지로 변모시키도록 하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

시였다.

주제 98(2009)년 1월 그이께서는 룡악산유원지를 찾으시였다. 시원하게 뻗어간 수십 km의 참관도로와 정각들과 못들, 놀이장들과 2500석이나 되는 야외식사터와 휴식터들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룡악산의 정적인 대봉에 올라 룡악산유원지개발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에 의하여 옛적에는 경치와 기암괴석으로 명산이라 불리운 룡악산이 오늘날에는 요소요소에 아



름다운 건축미가 형성되어 경치부감과 휴식과 등산을 즐기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은 명산으로 더 훌륭하게 일신되게 되었다.

유원지의 입구에서부터 대봉까지 산허리를 감돌며 비단필을 펴놓은듯 연이히 뻗어간 4.5km의 등산도로. 다래길로 들어가는 길과 문바위터로 향하

는것처럼 명산으로 소문난 룡악산에는 이름난 샘물이 나오고있다. 그곳의 샘물은 각종 광물질과 주요이온들이 함유되어있어 먹는물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치료에도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장수샘물로 인정되고있다. 룡악산샘물공장에서는 하루에만도 10여만ℓ의 샘물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주제100(2011)년 1월 그 절정을 이룬다는 《삼룡골》에 가보면 남너로소 할것없이 벌려놓은 흥겨운 노래춤판이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그뿐이 아니다. 여러 곳에 꾸려진 야외식사터와 휴식터에서는 주변의 경치를 부감하며 음식상을 마주한 사람들의 웃음이 그칠새 없다.

산 좋고 물 좋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명산으로 소문난 룡악산에는 이름난 샘물이 나오고있다. 그곳의 샘물은 각종 광물질과 주요이온들이 함유되어있어 먹는물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치료에도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장수샘물로 인정되고있다. 룡악산샘물공장에서는 하루에만도 10여만ℓ의 샘물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주제100(2011)년 1월 그 절정을 이룬다는 《삼룡골》에 가보면 남너로소 할것없이 벌려놓은 흥겨운 노래춤판이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그뿐이 아니다. 여러 곳에 꾸려진 야외식사터와 휴식터에서는 주변의 경치를 부감하며 음식상을 마주한 사람들의 웃음이 그칠새 없다.

본사기자 리경월



무모한 군사적도발소동으로 차례 질것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반공화국군사적도발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4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1101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여 반공화국군사적도발소동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지난 23일 괴뢰육군 특수전사령관이라는 자는 《국회》 국정감사업무보고라는데서 《북의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전략적 군사시설타격을 위한 특수부대편성》을 추진하고있다고 하면서 《특수부대침투작전의 신속성보장》을 위해 항공부대도 새로 내출것이라고 떠벌여댔다.

또한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은 《유사시 특수작전의 효률성극대화》니, 《북 전지역에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공격용무인기제작 검토》니 뭐니 하고 호전적말발을 뽀뽀하면서 북침전쟁열을 전례없이 고취하고있다.

이것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모면한 정세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를 또 다시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공공연한 군사적도발이다.

우리는 이미 북남고위급긴급접촉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자면 어렵게 화해와 완화의 길로 돌려세운 북남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앞에서는 《신평의》요, 《리산가족상봉》이요, 《당국회담》이요 하고 떠들고 뒤에서는 군부장관들을 위추겨 동족을 해치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흥계를 꾸미는것이야말로 도발망동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로써 남조선당국이 곧잘 외우는 《신평의》이니, 《평화통일》이니 하는것이 한갓 기만극에 불과하다는것이 다시금 만천하에 날날이 드러났다.

우리의 핵무력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억제력이라는것은 현실을 통해 똑똑히 입증되고 있다.

날로 가증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는 우리의 핵보검을 괴뢰군부장관때때가 어제 보겠다는것이야말로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미국의 북침전쟁돌격대로 나서보았잖아 차례질것은 개죽음뿐이라는것을 남조선군부장관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을 등에 업고 허세를 부리며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결해보려다가 쓰디쓴 수치를 참패만을 당해왔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무모하고 도발적인 군사적대결책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대화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감히 우리의 신성한 전쟁억제력을 어찌보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도발자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본사기자

대결 《국회》의 오명을 쓰겠는가

지금 남조선 《국회》가 각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북인권법》이라는것을 만들어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여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은 그간 발목이 잡혀있던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다고 열간망둥이처럼 날뛰는가 하면 야당의 어중이떠중이들이 《야야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느니, 《북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느니 하고 맞장구를 쳐대고있다.

남조선 《국회》의 《북인권법》 채택놀음은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대결광대극이다.

《북인권법》으로 말하면 그것이 내포하고있는 온갖 대결적독소로 하여 남조선 각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친채 10여년간이나 휴지통에 구겨박혀있던 력사의 오물이다.

이미전에 공화국은 이것이 채택될 경우 그것을 동족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것을 다시 꺼내들고 야당까지 여기에 맞장구를 쳐대며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며 부산을 피우고있는 것이다.

참으로 남조선 《국회》를 동족대결의 란무장으로 만드는 여야의 역겨운 입맛춤이라 해야 할것이다.

《국회》라고 하면 민의를 대변한 법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지금 남북겨레는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가 그대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로 이어질것을 바라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심은 외면한채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악법채택에만 매여달리고있는 남조선 《국회》야말로 력사를 앞의로가 아니라 거꾸로 돌리려는 사이비 《국회》라 아니할수 없다.

남조선 《국회》가 진정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분계선너머 멀리있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것이 아니라 눈앞에 처참하게 펼쳐지고있는 저들내부의 심각한 인권문제부터 살피고 해결해나가는것이 옳고 처사일것이다.

남조선에서는 가장 초

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아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거리로 떨쳐나와 련일 시위투쟁을 벌리고 아찔한 고공에서 수백일째 통성을 하는가 하면 꽃나이 젊은이들이 등록금이 없어 배움의 길을 포기하고 자살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을 말아 돌보아 준다고 하는 《어린이집》들에서는 철부지아이들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마구 구타하여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는가 하면 사회를 저주하며 온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고 당국의 반인민적시책으로 인하여 수백명의 무고한 학생들과 인민들이 하루아침에 고있는 곳이 또한 오늘의 남조선사회이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혈세를 낭진하는 남조선 《국회》는 민생을 위한 똑똑한 법 하나 채택하는것이 없으며 만들어놓는것이란 민심을 기만하고 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악법들뿐이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않고 환곡줄을 나눈 동

족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북남대결을 사측하는것이 바로 남조선 《국회》의 진면모이다.

그러면서도 《북남국회회담》이요 뭐요 하고 요설을 늘어놓으며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생색을 부리고있으니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인가.

과연 자기를 터무니없이 험뜯고 모해하는 자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자고 할 상대가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 《국회》가 끝끝내 《북인권법》이라는것을 만들어낸다면 북남관계에도 파국적후과를 미치게 될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남조선 《국회》는 두고두고 대결 《국회》, 반통일 《국회》로 겨레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것이다.

남조선 《국회》가 사는 길은 민의와 대세의 추이를 따르는 길이다.

남조선 《국회》는 저들의 행위가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범죄적인 《북인권법》 조작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김연희

- 강제억류된 김련희의 운명을 두고 -

지난 8월 남조선의 신문들과 미국의 《뉴욕 타임스》, 《알 자제라》 TV에는 남조선에 유인람치되어간 공화국주민 김련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김련희는 몇해전 친척방문으로 주변국에 갔다가 남쪽에 가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인신거간군의 말을 듣고 남조선으로 가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인차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것을 깨닫고 남조선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인신거간군은 그의 련권을 강제로 빼앗고는 북에 가면 반역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위협하였다고 한다.

김련희는 남조선에 도착하여 자기는 속아서 잘못 왔다고 하면서 북으로 돌려보내줄것을 요구하였지만 남조선보수파당은 그가 《자기 의사에 따라 《한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북에 갈수 없다.》고 하면서 그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이번에 그의 폭로와 여러 신문, 방송의 보도로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주민을 제3국에서 비법적으로 끌고간 내막이 또다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됨으로써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여서 남조선으로 강제로 데려가고

돌려보내지 않고있는것은 명백한 유인람치행위로서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법도, 도덕도 안중에 없는자들의 반인륜적인 강대짓이 아닐수 없다. 그 막뒤에는 남조선당국, 정보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깊이 뻗쳐있는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본인이 돌아가겠다고 그토록 피타게 울부짖고있는데도 수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강제억류해두고있는 야만적인 행동

이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으로 돌아갈수 있는 길에 막힌 김련희는 밀항도 시도하고 귀조한 남조선련권을 만들기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것마저 실패하자 《간첩》루명이라도 쓰면 강제추방되지 않겠는가 하는 친친란만한 생각으로 자기가 중국에 있는 공화국의 령사관의 지시를 받고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거짓자수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련희는 지금도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5년전까지도 나는 그곳에서 결혼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이없게 가족과 멀

어져 체제가 완전히 다른 자본주의 남조선에서 《탈북자》의 이름으로 살고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으며 《본의아니게 부모, 형제, 자식과 생리별하고 혈육 한점없는 이곳에서 4년동안 가족을 그리며 살아가고있다.》, 《이제 더는 이런 고통을 참을수 없다. 가족에게로 돌아가고싶은 안타까운 이 심정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있다.

얼마나 나서자란 고향으로 가고싶었으면, 오늘

속여서 강제로 랍치해왔으면 늦게라도 본인의 간절한 요구대로 정다운 가족이 기다리는 북으로 돌려보내주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아직도 억류해두고있는것은 한조박의 인간애나 혈육에도 없는 짐승같은 만행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지금 이 시각도 《리산가족의 아픔》이요,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이요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들고있다.

그렇게도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김련희의 피타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사에 따른 랍복》이니 뭐니하며 김련희녀성을 강제억류해놓고 가족들과 영 상봉할수 없게 가로막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인도주의문제해결》이라는것이 내외의 비난여론을 무마해보려는 기만극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이제 더이상 여론을 우롱하지 말고 저들의 랍치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김련희를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지금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엄정한 눈길이 남조선당국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유엔 《북인권사무소》 폐쇄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아빠가 하늘에 새털처럼 걸려있다

남조선의 한 잡지에 《북직약수리행》을 요구하며 두번째 고공통성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로동자 강병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글의 내용을 요약소해한다.

강병재는 2005년 5월부터 대우조선소의 배를 만들었다.

조선소 하청로동자들은 자꾸 죽었다. 가장 먼저 죽었다. 강병재는 2007년 하청로동자들의 연대조직결성을 주도했다. ...

2009년 그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폐업했다. 폐업과 해고에 《원청개입》을 주장하며 송진탑에 올라 복직을 요구했다.

천막도 치지 못한채 《비방율이 고압전류에 차르륵차르륵 타는》 공포를 견디었다.

회사내협력사협의 회 대표에게 《2012년 12월 까지 채용》이라는 약속을 받고 88일째 땅을 밟

았다.

4년이 흘러 복직을 약속했던 대표는 직을 내버려놓았다. 신임대표는 《내가 한 약속이 아니며 리행의무가 없다.》고 했다.

강병재는 두번째 고공통성을 시작했다. 7월 17일 강병재의 고공통성이 100일을 넘겼다. 88일 송진탑통성을 합하면 7월 29일엔 하늘살이 200일째가 된다. 그 날은 그의 딸이 《혼자 200일을 견뎌낸 날》이기도 하다. 파피된 로동자의 삶은 가정을 깨고 부녀관계도 흔들었다. ...

통성시작직후 회사는 크레인(기중기)의 전기를 끊었다. 밤마다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허공의 암흑과 대결했다. 눈곱이 끼고 이물감이 심하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이몸이 모두 험했다. 멀미가 따라왔고 추락의 공포가 밀려왔다.

본사기자

《크레인벼랑》우에서 강병재가 웨쳤다.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고... 통일로동, 통일인금을... 로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그의 목소리는 잘게 찢겨 울려왔다.

교섭은 미궁이다. 두차례 열렸으나 진척이 없다. 협력사협의회쪽은 사내하청으로의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립장이다.

《약속을 지키라는것뿐이다.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두번째 고공통성마저 107일(7월 24일 현재)을 넘기고있다. 합의도 마음대로 깰수 있는게 《한국》의 로동현실이다. 하청로동자도 사람이다. 약속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딸은 걱정이 많다. 아빠는 《북직리행전엔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아빠의 고향이 자란다. 새파란 독이 돈다.

본사기자

진정으로 인도주의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특색있는 경제개발구들, 유리한 조건과 밝은 전망



9월 21일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온 여러 나라 기업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투자설명회가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투자설명회에서는 김천일 조선경제개발협회 서기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전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환경

효율적인 운영, 충분한 잠재력

그 특징은 우선 지난 시기 특수경제시대개발경험에 기초하여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복합형개발 등으로 개발구의 성격이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생산의 집중화, 다양화, 전문화를 실현하고 지역들간의 분업과 전반적경제체계에서의 호상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요구하는 세계경제발전추세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특징은 또한 경제개발

속에서 원산지, 철보산지 등 여러곳에 관광지구를 꾸리며 각 도들에서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국가적조치에 따라 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위원경제개발구, 홍남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와 같은 지방경제개발구들과 라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성민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전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환경

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천일서기장은 공화국에서의 경제개발구를 위한 사업과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국가적으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관리하는 정부급기관으로서 대외경제성 경제개발지도국을 내오고 그 아래기관으로 각 도인민위원회에 경제지대개발국을 내왔다. 경제지대개발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원산경제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에 경제지대개발 전문학과를 내왔으며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거나 우리 일군들이 다른 나라들의 선진적인 개발경험과 관리방식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각 도경제개발구들에서 개발총계획을 세계적 수준에 맞게 작성한데 기초하여 개발구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준칙과 매 지방의 독자성을 보장할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개발구들을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개발구 개발원칙을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경제지대개발구들에서 창설된 경제개발구들은 앞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

지역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수 있는 충분한 전망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으로서 거의 모든 경제개발구들이 해상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들과 련결되어있으며 이것은 경제개발구들을 수출주도형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특혜조치

다음으로 김천일서기장은 공화국의 경제개발구의 법적기초와 우대정책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구개발에서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아 하부구조건설을 완비하고 외국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있으며 그에 맞게 법률제도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2장 37조에는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을 허용하며 투자를 장려한다.》고 지적되어있다.

특히 2013년 5월 2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투자자에 대한 특례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같은것을 설립하고

의 개발지대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각 도들에는 지방의 특성에 맞게 공업,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부분의 경제토대가 충분히 갖추어져있고 국가의 과학기술인재화정책에 따라 각 이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다.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투자자에게 토지이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를 비롯하여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과 토지임대차계약, 토지임대기간 및 임대료가 연장,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 토지이용권 및 건물물의 매매, 임대대가,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등 경제지대개발에서 지켜야 할 법률적요구와 원칙들을 규정하고있다.

이밖에도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및 환경보호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부동산규정, 보험규정, 세금규정 등 각 분야의 규정, 세칙들이 작성공포되었으며 외국투자를 위한 법률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국가는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며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 합법

적인 소득을 철저히 보호해주며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들은 개발구에 단독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지사, 사무소 등을 설립하고 경영할수 있다.

또한 외국투자가는 경제개발구안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임대받아 단독 혹은 합영의 방법으로 하부구조를 건설할수 있으며 입주기업들에 재분양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는 국제관례대로 모든 경제활동이 진행되며 기업의 독자성과 특혜가 보장되게 된다. 경제개발구에서 경영활동과정에 생기는 분쟁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국제중재기관들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에 설립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장려 및 특혜조치를 제공해준다.

하부구조건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위치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와 토지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며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반환해준다.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율은 14%로서 지대밖의 25%보다 훨씬 낮으며 화폐통과 결제는 정해진 화폐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

업이 하부구조건설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해주며 관광업, 호텔업 등의 경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고 해당 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세금을 전부 면제해준다.

이밖에도 경제개발구개발을 위해 들어오는 외국투자가들에게는 입출국과 거주, 통신, 수출입 등 지대밖에서보다 훨씬 편리하고 우대적인 환경과 조건이 보장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다.

우리는 경제지대개발의 국제적추세에 맞게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려나갈것이며 개발구건설에서 작게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며 먼저 설계하고 후에 건설하며 선 하부구조, 후 상부구조의 건설원칙을 구현하여 우리의 개발구들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경제지대로 꾸려나갈것이다.

끝으로 그는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료를 요구하는 기업가들은 인터넷상의 《내나라》홈페이지 《www.Naenara.com.kp》를 리용하여 볼수 있다고 말하였다.

투자설명회는 나라들사이의 친선을 도모하고 다방면적인 경제무역거래와 투자유치를 광범히 확대해나갈수 있는 의미깊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낸인 미술가들

애국의 마음을 유화에 담아

화가 오래경은 1913년 11월 황해남도 해주시 작농의 가정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들의 극진한 애무를 받으며 자랐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무척 취미를 가지고있던 그는 중학교때에는 근 60여점의 작품들을 창작하여 소년미술전람회에 발표하였다. 유화 《부용당》(1929년), 《향촌의 가을》(1930년), 《청천강의 아침》(1932년) 등이 이 시기 창작한 작품들이다.

그는 미술공부를 위해 해외로 나갔으나 돈이 없어 부두로동자로 일하다 1937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후 차례로 그림공부를 하면서 1942년까지 4차

에 걸치는 개인전람회를 가지었다. 대표적인 작품들인 유화 《부두로동자의 석사》(1936년), 《설송》(1937년), 《눈내리는 양산대》(1941년), 《눈 온 아침》(1942년) 등에서 그는 당시 일제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모습과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잘 형상화하고있다.

유화 《아리랑》은 일제에 개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는 농민들의 류랑생활을 그린것으로 하여 탄압대상으로 되었다.

나라의 해방은 그의 삶과 창작생활에서 전환을 가져왔다.

1946년 북조선교육문화 인직업동맹 황해도위원회 부위원장, 1947년부터 북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을 한 그는 사회활동의 긴장하고 분주한 속에서도 창작을 계속 하였다.

유화 《동지》(1945년), 《퇴근시간》(1946년), 《인민의 소리》(1947년), 《5.1절시위》(1947년), 《공작을 마치시오》(1948~1949년) 등 사상주제적내용이 뚜렷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유화 《동지》는 황해남도 미술전람회에서 1등으로, 《인민의 소리》는 전국문학예술축전에서 2등으로 평가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미술가로 활동하면서 전투적인 선전화들을 많이 창작한 오래경은 전후에 현역 미술가로 창작 생활

을 하였다.

유화 《원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1950~1955년)은 이 시기 대표작이다. 그는 일제시기 부두로동의 체험을 밑천으로 원산부두로동자들의 투쟁을 진실하게 그려 낼수 있었다.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조선미술가동맹 유화분과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유화발전과 창작지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그가 그린 유화 《개수탑》(1957년), 《유쾌한 귀로》(1959년)는 농촌생활에 대한 예술적전형화를 실현한 당시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오래경은 심오한 주제의 창작을 파고들면서 성공시킨 1950~1960년대 사회주의사실주의유화발전에서 커다란 기여를 한 이름있는 화가이다.

유화 《탄부의 가정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1972년)은 그가 절세위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흥미를 가지고 창작한 작품이다.

그는 자기 생애에 유화 《을밀대》, 《금강산》과 같은 많은 풍경화들도 창작하여 우리 나라 미술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최명수

우리 나라 명주를 세계적수준으로



얼마전 기자는 이름난 평양주를 생산하는 대동강식료공장의 기사장 최현실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인민들속에서 일명 명주로 알려진 평양주에 지난해 12월 15일품질메달이 수여되었는데 이 메달은 어떤 메달인가.

최현실: 한마디로 국내에서 질이 가장 높은 최우수제품들에 수여하는 메달이다.

이 메달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2012년 12월 15일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일데 대하여 주

메달은 국제적인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운데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대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고있는 제품들 그리고 국내에 널리 알려져 사용자들 의 호평을 받고있으며 인민들이 실지덕을 보고있는 최우수제품들에 수여되고있다.

기자: 그만큼 평양주가 국내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인정되고있다는건데...

최현실: 그렇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자연발효법에 의한 술제조방법을 발전시켜왔으며 고려(918-1392)시기부터는 쌀에 누룩을 넣어 술을 빚어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술 제조방법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제조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것이 바로 평양주이다.

알콜냄새(잡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평양주는 깨끗하고 순하며 감칠맛, 상쾌한 감을 주는것이 특징이다.

우리 겨레의 깨끗하

고 순박한 품성과 삼천리금수강산의 청신함과 아름다움, 상쾌함... 이 모든것이 평양주에 담겨져있다고 할수 있다.

2009년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평양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평양주는 대체로 알콜함량이 30%, 40%이며 이밖에 25%의 평양소주도 있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평양주가 평양시민들과 유류관, 청류관, 보통강상점을 비롯한 시안의 급양 및 상업봉사망들에 공급되고있는데 호평이 자자하다.

평양주와 평양소주는 품질이 뛰어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기를 끌고있다.

우리는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최첨단을 돌파하여 조선의 명주 평양주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만들겠다.



유화 《조선의 딸》 (1958년)

